광주예술의전당, 올해도 '선물 같은 공연' 풍성

▲광주예술의전당이 자체 기획공연, 대관공연 등 상반기 공연 라인업을 공개했다. 4월 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장면. 〈ⓒ 쇼봄〉

▶광주시립발레단이 오는 5월 16~17일 재연하는 정기공연 'DIVINE'. 〈광주시립발레단 제공〉

광주의 문화 허브 역할을 자임해 온 광주예술의전당은 시민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다양한 공연을 펼쳐 왔다. 현재 총 8개 예술단체 300여 명 단원이 소속돼 전통 음악과 창극, 교향악에 이르기까지 장르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예술의전당(전당장 윤영문·전당)이 올해 상반기 전당 대극장 및 소극장 무대에 오를 작품 라인업을 공개했다. '스타워즈' ,'인터스텔라' 등 OST를 감상하는 '영화음악 콘서트'부터 클래식 공연 '베토벤 전곡 시리즈'까지 다채로운 작품이 관객을 만난다.

먼저 '천공의 성 라퓨타', '이웃집 토토로', '원령공주', '마녀 배달부 키키' 등 수많은 영화음악 명곡을 감상하는 공연이 펼쳐진다. 오는 4월 13일 열리는 '캔들라이트 콘서트 : 히사이시조 최고의 작품'이 그것이며 일본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히사이시조 작품으로 채워진다.

총 8개 예술단체 300여 명 단원 OST·오페라·발레·독주회 무대

이어 '지브리&디즈니 영화음악 FESTA'는 5월 25일 공연장을 수놓는다. '벼랑위의 포뇨', '이웃집 토토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 익숙하고 대중적인 곡으로 영화음악 애호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영화음악 거장의 곡을 오케스트라 실연으로 듣는 '존윌리엄스vs한스짐머'(6월 1일)도 준비돼 있다. '스타워즈', '나 홀로 집에' 등에서 울려 퍼졌던 오리지널 트랙이 아름다움을 전한다.

서울 깍쟁이 딸 미영과 시골 친정엄마의 연대를 그린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5월 7일~10일)도 볼거리다. 대학로를 사로잡았던 코믹연극 '졸탄쇼'는 6월 28~29일 대극장에서 위트를 선사한다. '웃찾사'와 '코미디빅리그' 흥행을 이끌었던 개그트리오 졸탄(이재형·한현민·정진욱)이 출연한다.

다채로운 클래식 공연도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5월 10일 소극장에서는 위드유 앙상블이 정기연주회 '초심-베토벤 전곡 시리즈1'을 펼치며 11일에는 '백미향 귀국 독주회'가 열린다.

이어 광주 송원여고 출신의 전문 음악인들 모임 '원음회'는 6월 15일, 조민정 피아니스트는 6월 18일 소극장에서 리사이틀을 진행한다. 소프라노 황지혜 '귀국 독창회'도 같은 달(22일) 준비돼 있다.

전당 또한 자체 기획공연과 시립예술단 정기공연을 통해 지역민을 찾아갈 계획이다. 광주시립발레단은 5월 16~17일 제140회 정기공연 'DIVINE', 5월 31일 특별 초청공연 '코펠리아'를 선보인다.

한편 4월 5~6일 대극장에서는 최백호 단독 콘서트 '낭만에 대하여'가 열린다. 이번 공연은 '영일만 친구', '그쟈', '입영전야' 등으로 공감을 자아냈던 노래로 채워진다.

같은 달 8일부터 13일까지는 뮤지컬 'Bloody Love'를 상연한다. 대학로 등 전국 공연장에서 사랑받아 온 레퍼토리로 1469년 트란실바니아에서 이어진 드라큘라의 이야기를 극화했다. 루치한 반헬싱 대주교가 이끄는 십자군이 교황청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드라큘라 가문을 몰살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

20주년을 넘긴 스테디셀러 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는 4월 26~27일 상연된다. 무언극인 이 작품은 발레리나의 순정적인 러브 스토리에 감동받는다는 내용으로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았다. 흥행에 힘입어 인터내셔널 버전의 영화 '스텝업'으로도 제작된 바 있다.

아울러 올해도 소리꾼 '장사익 소리판' 무대가 마련된다. 1994년 '장사익 소리판 하늘 가는 길'로 데뷔 이래 전통 애호가들에게 사랑을 받아 왔다.

전당 모성일 홍보팀장은 "대관공연, 시립예술단 자체 기획공연을 비롯해 전당에서는 을사년 한 해 젊은 세대와 소통을 표방하는 기획공연 포커스, 예술축제, 마티네 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를 준비할 계획이다"며 "흥미를 자극하는 다양한 작품들로 올 한 해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광주예술의전당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공연별 관람료 상이.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소설·영화 함께 보고 토론

'20세기소설영화독본' 15일 '돈키호테'로 시작

'돈키호테', '헬프', '흐르는 강물처럼'…,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가여운 것들', '케빈에 대하여',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올해도 소설과 영화를 함께 보고 읽고 토론하는 인문학 모임 '20세기소설영화독본'(대표 조대영, 소설영화독본)이 진행된다.

17년째를 맞이한 소설영화독본은 영화인 조대영 씨가 2009년 1월 모임을 시작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소설영화독본 상반기 프로그램이 나왔다. (광주극장 뒤편 '영화의 집'에서 격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열린다.)

먼저 프로그램 문은 15일 '돈키호테'로 연다. 이상주의자인 돈키호테와 현실주의자인 산초가 등장하는 모험소설이다. 특히 영화 '돈키호테 맨 오브 라만차'는 세르반테스의 원작 탄생 400주년 기념작으로 돈키호테와 산초의 모험을 다뤘다.

두 번째 시간(2월 5일)에는 '헬프'를 만난다. 캐스린 스토켓의 '헬프'는 40여 개국에서 번역 출간되었을 만큼 사랑 받는 작품이다. 1960년대 초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을 배경으로 세 여자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내용이다, 엠마 스톤과 비올라 데이비스 등이 출연한 '헬프'는 인종차별뿐 아니라 여성의 주체적 삶도 들여다본다.

2월 19일(수)에 만나는 작품은 '흐르는 강물처럼'. 원작은 시카고 대학 교수였던 노먼 매클린이 실화를 토대로 가족 간의 사랑과 아픔 그리고 인생의 참 의미를 담았다. 영화는 두 형제의 대조적 삶을 다뤘으며 동생역 브래드 피트는 영화를 연출한 로버트 레드포드를 빼닮은 것으로 화제가 됐다.

'돈키호테 맨 오브 라만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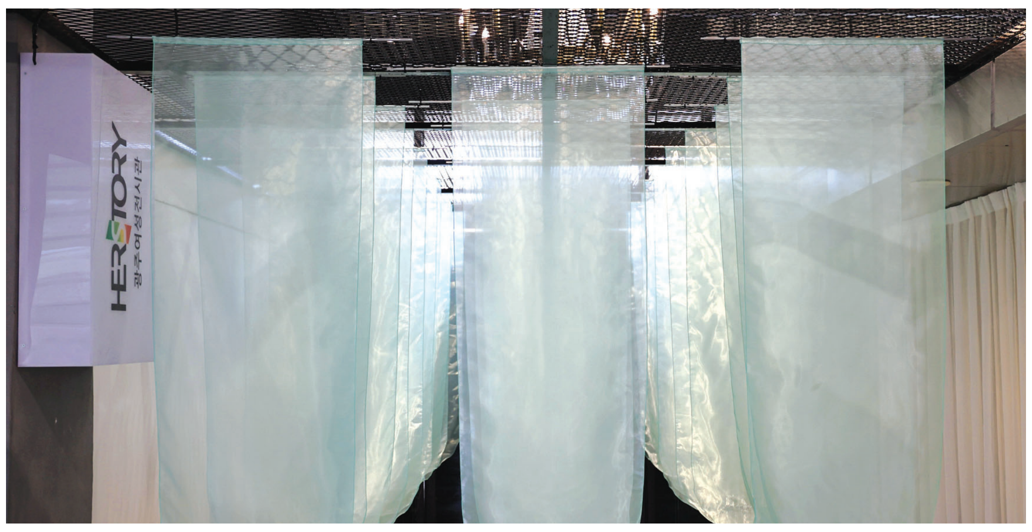
'붉은 수수밭'

1950년대 미국 브루클린 하층민 삶을 묘사한 작품도 있다.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3월 5일)는 강렬한 서사, 개성적인 캐릭터들, 현실감 넘치는 연출로 이목을 끌었다.

이후 '가여운 것들'을 비롯해 '케빈에 대하여',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붉은 수수밭', '티파니에서 아침을'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한편 조대영 대표는 "지난 2019년 모임을 결성한 이후 17년째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소설과 영화를 좋아하는 이들의 관심과 지지 덕분이었다"며 "서로 다른 장르지만 서사라는 공통점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영화와 소설은 다양한 해석과 사유를 가능하게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내가 살고 싶은 나라' 패브릭 전시물. 〈광주여성가족재단 제공〉

섬유 위에 수놓은 시장 여성들의 삶

광주여성가족재단 허스토리 기획전, 3월 21일까지 여성전시관

이연숙 작가는 장소와 기억, 여성의 이야기를 질료 삼아 설치·조각 작품을 제작해 왔다. 그는 어머니, 외할머니 등 여성의 삶으로부터 전승되는 지혜에 초점을 맞춰 비정형, 모성의 유연한 이야기를 포착하는 데 주목한다. 한복 천과 같은 유연한 패브릭이 사용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례·재단)이 제7회 허스토리 기획전 '내가 살고 싶은 나라'를 오는 3월 21일까지 광주여성전시관(광주시민회관 1층에서 펼친다. 이 작가의 개인전으로 재단이 추진해 온 '광주여성 생애구술 사업'에서 모티브를 얻어 시장 여성들의 말과 삶을 섬유와 기계자수로 표현했다.

다양한 섬유에는 근기 있던 여성의 삶이 양각돼 있다. "날 새는 것 빼끼는(밖에는) 힘든 것이 없었제", "잘 먹었네 고맙네" 등 시장의 삶이 투영된 언어에서 생명력을 엿볼 수 있다.

조명 작업 'MARRY ME'는 결혼과 가족을 위해 희생하면서도 지혜를 발휘한 여성 이야기를 담았다. 재봉 일을 하던 여인들이 실밥을 뜯지 않고 가져와 밤늦게 정리하던 모습에서 영감을 얻었다.

한편 이 작가는 지난해 삼청각 취한당 '물 위를 걷는 꿈' 전을 비롯해 문화비축기지 '티핑포인트' 등에서 작업물을 선보여 왔다. 뉴욕 'Voidscape'전, 캐나다 2인전 'Two Rivers Crossed Landscape'를 펼쳤으며 광주 닷밀에서 '금남나비정원'을 전시했다.

이 작가는 "관객들이 패브릭 사이를 유연하게 거닐며 시간의 '켜(층)'를 경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며 "재단이 주변 시장 어머니들의 삶을 구술 채록했던 '시장은 나의 힘' 등 텍스트를 기반으로 작업했다"고 했다.

무료 전시, 재단 유튜브 채널에서도 감상 가능.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겨울방학에 만나는 겨울모양

ACC재단, 10일부터 어린이창작실험실·문화원

'겨울 느낌 속으로', '겨울 놀이 속으로', '겨울 이야기 속으로' 등 소주제를 중심으로 한 11종 문화예술 교육이 진행된다. 영유아들이 놀이, 이야기를 통해 겨울에 대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선옥·ACC재단)은 '겨울 모양?!'이라는 주제로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오는 10일~2월 14일 ACC 어린이창작실험실과 어린이문화원 등에서 연다.

'겨울 이야기 속으로'는 총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먼저 11일~2월 9일 열리는 '새해는 언제 시작될까'는 특별전 '아시아 이야기 꾸러미: 신나는 그림책 모험'과 연계 진행한다.

오르골 만들기 체험인 '눈사람 실종사건'은 1월 18, 19일과 2월 1, 2일 참가할 수 있다.

'생성형 AI와 함께하는 아시아 동화 여행'은 초등 4~6학년을 대상으로 오는 4일~26일(매주 주말) 무료로 열린다.

다음으로 '겨울 놀이 속으로'는 블랙라이트와 형광도구를 활용한 창작랩 '겨울 캠핑 놀이터',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얼음 땡! 로봇 운동회', 로봇 역할극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파이보와 함께해요'로 구성된다.

끝으로 '겨울 느낌 속으로'는 '알록달록 겨울모양', '눈꽃 유리 창작소'를 비롯해 상설 예술창작 프로그램 '겨울 판타지' 등도 즐길 수 있다.

'캠핑 놀이터' 〈ACC재단 제공〉

ACC재단 김선옥 사장은 "겨울방학을 앞두고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상상력을 키워 나가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유아부터 중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이 참가 가능하니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하고 가시길 바란다"고 했다.

ACC재단 누리집 신청.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전국서 가장 높아

2월 3일~11월 28일 신규발급

광주문화재단 문화누리카드 이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문화재단에 따르면 2024년 17개 광역시·도의 총 지원금액은 3400억이었으며 이 가운데 광주시 지원금액은 123억원이었다. 총 9만4822명에게 1인당 13만원이 지원돼, 123억원 중 115억을 사용했다. 이용율은 93.4%로 작년 대비 7.64% 신장했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은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 등을 통해 2월 3일~11월 28일 가능하다. 이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3만여 개의 가맹점에서 가능하다.

노희용 대표이사는 "지난해 5월 대표이사 취임 후 문화누리카드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문화격차가 완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였다"며 "향후에도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통해 보편적 문화복지가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올해는 1인당 14만원이 지원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